

사이버범죄를 위한 상황행위이론의 확대적 그리고 대안적 논의의 적용과 논쟁*

이성식**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의 시도의 하나로 상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좀 더 확대된 논의를 통해 이를 적용해 본다.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러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과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동기요인과 도덕차원 요인으로 도덕성 및 법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도덕차원 요인들 간의 개인요인으로 도덕성과 환경요인으로 법위반친구와의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시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주위통제의 작용 등을 검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로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으로 개인의 도덕성이 높지만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이 높은 갈등상황이나 차별접촉이 낮은 환경이지만 개인의 도덕성이 낮은 갈등상황에서 각각 자기통제와 처벌억제가 통제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이 높은 범죄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주위통제가 모두 통제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상황행위이론의 도덕차원에서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 그밖의 논의는 대체로 지지되지 못했고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 주제어 : 사이버범죄, 상황행위이론, 도덕요인, 통제요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17S1A5A2A01023533)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 서론

우리의 일상에서 인터넷이나 SNS 등이 주요 일부분이 됨에 따라, 이와 함께 온라인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사이버범죄 연구가 범죄학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시도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범죄학이론들을 적용하고 검증하여 왔는데, 여러 이론들 중에서 자기통제력과 같은 내적 통제부족(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긴장의 표출(긴장이론)(Agnew, 1992), 차별접촉과 인터넷문화에서의 학습(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Akers, 1985), 그리고 그 외 범죄기회(기회이론)나 처벌미약(억제이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주요 요인들로 지지받아 왔다(이성식, 2017). 즉 인터넷 이용상에서는 익명과 비대면의 공간에서 자기조절을 못하고, 욕망과 불만을 표출하기 쉬우며, 주위에서 범위반의 사람과 환경에 쉽게 접하는 가운데, 또한 범죄의 기회가 용이하고 처벌도 미약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범죄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일이론과 요인으로서는 그 설명이 충분치 않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논의 및 새로운 이론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통합적 시도의 하나로 상황행위이론(Situational Action Theory)(Wikström, 2004, 2010)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 상황행위이론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을 시도한 통합이론이고 각광을 받는 이론이지만 아직 국내에 적용된 적이 없는데 무엇보다 상황행위이론은 그 특징과 내용이 사이버범죄에 보다 잘 적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상황행위이론은 범죄설명에서 개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상황적 논의를 다루는 이론이면서 범죄의 동기와 기회, 도덕적 맥락, 그리고 통제요인 등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는 통합적 이론이다. 사이버범죄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제시하듯이 일정 동기(욕구와 불만의 표출)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기회가 용이하며, 사이버공간에서 그 행위에 대한 도덕규범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저지할 내적 통제 등 통제가 약한 특징이 있다(이성식, 2017). 그런데 상황행위이론에서는 그 등장하는 요인들이 기존의 긴장이론(동기)이나 기회이론(기회),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도덕차원요인들), 일반이론(자기

통제), 억제이론(처벌억제) 등의 요인들을 모두 다루고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뿐만 아니라 그 이론들간의 통합과정에서의 주장들이 새롭고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행위이론은 여러 복합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 외국연구들에서조차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하지 않고 이 논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일부의 논의를 검증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검증을 요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으로부터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주장과 연구가설들을 도출하고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상황행위이론은 기존 연구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기존 주장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그와는 상반되는 대안적 주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한다.

여기서는 먼저 상황행위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확대적, 대안적 논의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연구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이버범죄 설명을 위한 상황행위이론의 적합성과 향후 수정 필요성 등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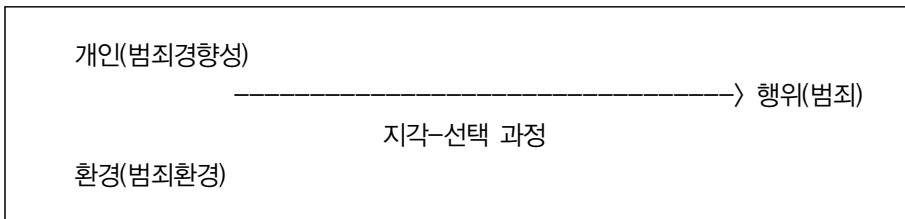
II. 이론적 논의

1. 상황행위이론과 기존 연구

가. 상황행위이론

상황행위이론(Wikström, 2004, 2010)은 범죄설명을 위한 대표적인 통합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설명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는 기존 범죄논의의 개인요인만을 고려한 논의나 혹은 환경요인만을 강조한 논의의 개인과 환경의 분리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시도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상황을 강조하는데, 그 상황이란 행위자가 환경여건에서 행위의 대안을 지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상황적 분석(지각-선택 과정)을 통해 개인과 환경요인을 통합하려 하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개인요인으로는 범죄경향성(criminal propensity)과 환경요인으로는 범죄환경(criminogenic settings)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개인의 지각과 선택의 과정이 행위(범죄)로 결과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의 동기측면에서는 개인의 욕구나 불만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동기는 개인이 놓여있는 환경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일정 환경상황에서 욕구나 불만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범죄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환경여건으로 기회를 제시했는데 즉 그러한 개인 욕구와 불만이 기회와 함께 있어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상황에서 동기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범죄동기는 도덕적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도덕차원의 요인을 강조했다. 개인차원으로는 개인의 도덕성(morality)이, 환경차원에서는 도덕규칙(moral rule)이 상호작용하면서 도덕적 필터로 작용한다고 했는데(여기서 도덕성이란 개인의 도덕성 정도, 도덕규칙은 개인을 둘러싼 도덕환경을 말한다), 즉 개인의 동기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상황에서 도덕적 필터가 작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인지를 지각하고 범죄선택을 판단한다고 본다. 이때 만약 개인의 도덕성이나 도덕규칙의 환경이 부족할 때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상황 =	개인	*	환경
동기	동기(욕구/불만)		기회
도덕적 필터	도덕성		도덕규칙

그리고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동기와 도덕적 필터의 상호작용이후에도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통제메카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자기통제와 처벌억제를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메카니즘은 개인(도덕성)과 환경(도덕규칙)의 도덕적 필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겪게 될 때 작동한다고 보았다. 즉 통제측면은 일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의 개인과 환경간의 도덕의 갈등상황에서 작동하는데,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인 갈등상황이나 혹은 도덕규칙 환경은 존재하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은 갈등상황에서 통제요인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 때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내적 통제인 자기통제력이 범죄선택에서 중요하고, 반면 환경의 도덕규칙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은 낮을 때는 처벌의 억제력이 범죄에 중요하다고 보았다(Wikström, 2010). 그 대신 도덕성도 낮고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는 통제요인과 상관없이 범죄 가능성은 높으며, 도덕성이 높고 도덕규칙이 높을 때는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도덕차원		통제차원	
개인 도덕성	환경 도덕규칙		
+	+		—————> 범죄가능성 낮음
+	-	자기통제여부	—————> 범죄
-	+	처벌억제여부	—————> 범죄
-	-		—————> 범죄가능성 높음

나. 기존 연구

상황행위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혹은 복잡한 논의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후 연구들에서는 그 논의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왔다. 기존 연구는 범죄설명에 있어 상황행위이론의 주장 중에서도 주로 도덕차원의 요인들이 자기통제나 처벌억제의 통제요인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범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Ousey and Wilcox, 2008; Meldrum et al., 2013; Hirtenlehner et al., 2015). 상황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은 높는데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범죄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위의 연구들은 그러한 갈등상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범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의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작동한다는 결과로 어느 정도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라면 도덕성이 높을 때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Antonaccio and Tittle, 2008), 대체로 그 주장과는 반대로 대다수의 연구들이 낮은 도덕성에서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Shoepfer and Piquero, 2006; Svensson et al., 2010; Wikström and Svensson, 2010; Hirtenlehner and Kunz, 2015).

또한 상황행위이론은 도덕규칙 환경은 높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외부의 억제력이 범죄에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 보면 처벌의 억제력은 도덕성이 낮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뿐만 아니라(Wright et al., 2004) 상황행위이론을 검증하려는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Wikström et al., 2011; Svensson, 2015). 하지만 도덕성과 처벌억제력과의 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allupe and Baron, 2010; Pauwels et al., 2011). 한편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도덕규칙이 높을 때 처벌억제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도덕규칙 환경요인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확대적 그리고 대안적 논의

상황행위이론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이 매우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장만을 검증하고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상황행위이론의 검증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야 할 주제와 아울러 상황행위이론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논의를 제시해 본다.

첫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범죄동기가 비록 도덕적 요인보다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논의 속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개인과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다룸에 있어 개인 동기요인이 상황적 환경맥락의 기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점을 소홀히 다루었고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일부 지지가 있었듯이(이성식외, 2016) 그 이론대로라면 개인의 동기의 표출은 기회가 있어야 범죄로 결과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범죄동기가 도덕적 필터에 따라 범죄여부에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가 경험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은 도덕적 필터인 개인의 도덕성이나 혹은 도덕규칙 환경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상긴장이 필요조건이고 도덕차원요인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 또한 설명의 요건이 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통합적 주장(Agnew, 1992; Piquero and Sealock, 2000)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동기요인이 존재하고 동시에 도덕성이 낮거나 도덕규칙이 낮은 범죄유발 환경에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그 반대로 도덕요인이 높을 때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했던 이러한 측면을 다룰 것이다.

셋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도덕차원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개인성향으로는 도덕성이, 환경차원에서는 도덕규칙이 상호작용하면서 도덕적 필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주장이 검증되지 않아 검증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성(혹은 개인태도)(이성식, 2006)과 범위반친구의 차별접촉과 같은 범죄유발적 환경(Higgins et al., 2007; 남상인, 권남희,

2013)이 각각 사이버범죄에서 중요하지만 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 범죄환경에 노출될 때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덕성과 도덕규칙(혹은 차별접촉과 같은 도덕규칙이 낮은 범죄환경)은 사이버범죄 설명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도덕차원이외에 통제요인을 다루고 있고,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와 같은 통제요인이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상황에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나 갈등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과 자기통제력(Antonaccio and Tittle, 2008; Svensson et al., 2010), 그리고 범죄환경(차별접촉 환경)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만을 다루었거나(Hirtenlehner et al., 2015), 개인의 낮은 도덕성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만을 다뤘(Wikström et al., 2011; Svensson, 2015)(기존 연구에서는 도덕규칙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다루지 않았음) 다소 정확치 않게 그 주장들을 다루었던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개인과 환경차원의 갈등상황에서 통제요인의 작용을 좀 더 세밀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황행위이론에서는 통제요인을 다룰 때 내적 통제로 자기통제와 외적 통제로 공식기관에 의한 처벌의 억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통제는 그 외에도 사회 통제이론(Hirschi, 1969)의 주장에서와 같이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와 비공식통제로부터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통제요인의 작용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외부(주위)의 사람은 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고(주위로부터의 비난이나 수치심의 작용 등)(Heimer and Matsueda, 1994; 이성식, 1995), 일반이론에서의 이후 자기통제 논의도 그와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수정되듯이(Hirschi, 2004; Ward et al., 2015) 그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통제측면은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위의 통제는 내적 통제이면서 동시에 외적 통제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의 낮은 도덕성과 높은 도덕규칙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의 높은 도덕성과 낮은 도덕규칙(범죄환경)과의 갈등상황 모두에서 범죄통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상황행위이론은 통제요인을 다루고 있고, 자기통제력과 처벌

억제와 같은 통제요인이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상황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으나 그 논의가 복잡하고 과연 그럴지에 의문이 생긴다. 그러한 갈등에서가 아니라 앞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했듯이 개인의 도덕성도 낮고 도덕규칙 환경도 낮은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통제요인들의 작동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크게 작용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여러 가설들을 제시하고 검증하기로 한다. 우선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소홀했던 개인동기요인과 범죄기회요인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도덕차원요인으로 개인요인으로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환경요인으로서는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법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을 다룬다. 아울러 통제요인으로서는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의 인지도, 그리고 주위의 통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때 상황행위이론과 그리고 좀 더 확대된 논의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동기와 범죄기회요인의 작용을 소홀히 다루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범죄동기가 기회상황에서 발생되고 표출된다는 측면을 다룸에 있어, 여기서 범죄동기요인으로서는 사이버범죄에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이전의 범죄피해경험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성동규외., 2006, 이승현외., 2015). 사이버범죄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폭력의 경우 범죄피해경험에서 긴장이나 화의 해소, 보복의 이유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피해로부터의 범죄동기는 아무 상황에서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고 범죄기회가 높을 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범죄동기와 범죄기회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룰 것이고, 범죄동기(범죄피해)가 높고 기회가 높을 때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범죄동기는 도덕적 필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도덕차원 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도덕규칙 환경으로 사이버범죄자와의 차별접촉과 각각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즉 상황행위이론에서 보면 범죄동기가 높고 도덕요인이 낮을 때(도덕성이 낮거나 혹은 차별접촉이 높을 때) 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동기(피해경험)와 도덕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범죄동기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셋째, 상황행위이론의 주장에서 도덕차원의 개인과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과는 도덕성이 낮고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범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그 상호작용효과는 부(-)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상황행위이론에서 보면 개인의 도덕성과 환경의 도덕규칙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자기통제력과 억제요인과 같은 통제요인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갈등상황에서의 작용을 다루기로 하는데,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평균을 중심으로 상과 하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자와의 차별접촉도 범죄 친구가 있고 없음을 중심으로 상과 하로 나눌 때, 도덕성이 상이고 차별접촉이 상인 불일치 갈등상황인 경우에 자기통제력 여하가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할 것이고, 도덕성이 하이고 차별접촉이 하인 불일치 갈등상황인 경우에는 처벌억제가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이 분석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각각 선택하여 자기통제와 처벌억제의 영향을 다룰 경우 그 해당 표본수가 적어지는 관계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한다. 즉 도덕성이 상인 경우만을 선택하여 차별접촉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로 하며 그 부호가 부(-)적이어서 차별접촉이 높은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을 때 범죄를 안하게 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별접촉이 하인 경우 도덕성과 처벌억제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로 하며 그 부호가 정(+)적이어서 도덕성이 낮은 갈등상황에서 처벌억제가 높을 때 범죄를 안하게 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여기서는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주위의 통제를 다룰 것인데, 이는 내적 그리고

외적 통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 내적 통제 작용의 경우와 같이 도덕성이 상이고 차별접촉이 상인 불일치 갈등상황인 경우에, 혹은 외적 통제 작용의 경우와 같이 도덕성이 하이고 차별접촉이 하인 불일치 갈등상황인 경우에 주위의 통제는 사이버범죄를 잘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이 상인 경우 차별접촉과 주위통제의 상호작용효과의 부호가 부(-)적인지, 차별접촉이 하인 경우 도덕성과 주위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인지를 검증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대안적 논의에 따르면 과연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 처벌억제, 주위통제가 작동할지가 분명치 않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 낮고 도덕규칙도 낮은 차별접촉이 높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 처벌억제, 주위통제가 더 작동할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도덕성이 하인 경우 차별접촉과 여러 통제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인지, 그리고 차별접촉이 상인 경우 도덕성이 낮을 때 여러 통제요인들이 작동할거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여러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인지를 다룰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해 다루기로 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2018년 서울시에 재학중인 5개 대학의 대학생을 조사한 것으로 각 학교에서 성과 학년을 할당하여 60여명씩 총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절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2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동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논의들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이버범죄를 통해 측정하기로 한다. 이에 폭력 및 성관련범죄, 온라인이용 재산범죄, 그리고 침해형범죄 등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항목으로 1)욕설/비방/허위사실유포 2)성희롱 3)스토킹, 4)사기/재물훔치기 5)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혹은 이용 6)음란물사이트 운영 혹은 이용 7)저작

물 업로드나 무단이용 8)해킹으로 인한 정보침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여덟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과 “1회”, “2-3회”, “4-9회”, “10회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0-4점을 부여한 후 이것을 합산하였다. 범죄항목을 위의 구분없이 총행위빈도 횡수로 하여 합산할 경우 많은 빈도의 특정 범죄가 전체 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없음”과 “있음”으로 0-1점으로 하여 합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행위의 다양성은 측정할 수 있지만 빈도의 측면을 간과해 그 중도적 방법으로 횡수를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합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본 연구의 주요 요인인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은 위의 사이버범죄 여덟 항목에 대해 각각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에서 “매우 나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합산했다($\alpha=.957$).

도덕규칙 환경요인으로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은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의 위의 여덟 항목에 있어서 친한 친구 중 그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없음”과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0-4점을 부여한 후 합산했다($\alpha=.788$).

본 연구에서 범죄동기로 사이버범죄피해경험은 앞서 여덟 항목에서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과 “1회”, “2-3회”, “4-9회”, “10회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0-4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였다($\alpha=.811$).

범죄기회는 범죄기회의 인지도로 “나는 평소에 사이버범죄를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나는 사이버범죄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이버범죄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 등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94$).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충열두 개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문항을 역부호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alpha=.832$).

처벌억제는 사이버범죄의 여덟 항목에 대해 각각 그것을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합산했다($\alpha=.917$).

주위통제는 주위 사람(예: 부모님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내가 사이버범죄를 하게 된다면 주위 사람(부모님 등)은 실망하실 것이다”, “내가 사이버범죄를 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부모님 등)을 생각하면 망설여 질 것 같다”, “내가 사이버범죄를 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부모님 등)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다” 등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09$).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여성(=0)과 남성(=1)을,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재부호화를, 아울러 가족의 경제수준은 주관적 수준으로 ‘하’에서부터 ‘하중’, ‘중’, ‘중상’, ‘상’에 응답하도록 했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은 남성이 149명(49.5%), 여성이 152명(50.5%)이었다. 연령은 18-28세 범위에서 평균이 21.48세이었고 가족의 경제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값이 3.2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도덕차원의 요인인 개인의 도덕성은 8-40범위에서 평균값이 36.817로 매우 높았고, 도덕규칙 환경으로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은 0-32범위에서 평균값이 2.776으로 낮았다.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는 0-19범위에서 평균값이 .847이었고, 범죄기회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9.037이었다.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는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7.827, 처벌억제는 8-40범위에서 평균값이 33.161로 높았고, 주위통제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12.698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범죄는 0-18범위에서 평균값이 1.256으로 매우 낮았다.

〈표 1〉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149	49.5			
	여성	152	50.5			
연령				21.48	2.073	18-28
경제수준				3.2	.745	1-5
도덕성				36.817	4.274	8-40
차별접촉				10.776	4.427	0-32
범죄피해				.847	2.186	0-19
범죄기회				9.037	3.487	3-15
자기통제				37.827	7.573	12-60
처벌억제				33.161	5.972	8-40
주위통제				12.698	2.518	3-15
사이버범죄				1.256	2.553	0-18

먼저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사이버범죄피해의 동기요인의 영향력과 아울러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대로 그와 같은 동기가 높고 기회가 높을 때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은지, 아울러 그러한 동기가 도덕차원 요인으로 도덕성은 낮고, 도덕규칙 환경으로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살펴보면 <표 2>의 결과에서 제시된다. 그 결과 사이버범죄피해는 독립적으로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높은 영향력을 가졌고, 범죄기회의 독립적인 영향력 또한 $p<.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은 각각 부(-)적,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특히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차별접촉이 가장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으로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에 따라 사이버범죄피해와 범죄기회, 도덕성, 차별접촉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보면 사이버범죄피해와 범죄기회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즉 사이버범죄피해와 범죄기회, 도덕성과 차별접촉은 각기 독립적인 영향력만을 갖는 것을 제시해 상황행위이론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못했다.

〈표 2〉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와 기회 및 도덕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독립변인	b	β
남성	.491*	.096
연령	.007	.006
경제수준	.019	.006
범죄피해	.273***	.233
도덕성	-.112***	-.187
차별접촉	.237***	.409
범죄기회	.088**	.120
피해*도덕성	.021	.132
피해*차별접촉	.013	.085
피해*기회	-.001	-.003
R제곱	.518	
F값	30.843***	

*p<.05; **p<.01; ***p<.001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의 영향력에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표 3>에서와 같다. 그 결과는 차별접촉이 p<.001수준에서 정(+)적으로, 도덕성은 p<.01수준에서 부(-)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또한 그 상호작용효과가 p<.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자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

〈표 3〉 사이버범죄에 대한 도덕성과 차별접촉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독립변인	b	β
남성	.409	.080
연령	.005	.004
경제수준	.059	.017
도덕성	-.112***	-.188
차별접촉	.238***	.412
도덕성*차별접촉	-.014***	-.211
R제곱	.482	
F값	45.275***	

*p<.05; **p<.01; ***p<.001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이 있을 때의 자기통제와 처벌억제의 작동을 알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4-1>과 <표 4-2>에 제시된다. 이 분석을 위해 <표 4-1>에서와 같이 도덕성이 상으로 높은 경우와 하로 낮은 경우로 나누어 도덕성이 상인 경우에서의 도덕성은 높는데 차별접촉이 높은 갈등상황에서의 자기통제의 통제작용을 알기 위해 차별접촉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와는 반대로 도덕성이 상으로 높은 경우 차별접촉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효과의 그 부호가 부(-)적이 아니라 정(+)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했다. 그 영향력이 비록 약하지만 이 결과는 도덕성이 높지만 차별접촉이 높은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가 높을 때 오히려 범죄를 더 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오히려 <표 4-1>에서 도덕성이 하일 때의 결과를 보면 차별접촉과 자기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p<.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도덕성도 낮고 차별접촉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가 범죄통제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4-1〉 사이버범죄에 대한 도덕요인갈등에서 자기통제의 영향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도덕성(상)		도덕성(하)	
독립변인	b	β	b	β
남성	.246	.086	.595	.092
연령	.024	.036	.038	.025
경제수준	-.038	-.020	-.021	-.005
차별접촉	.265***	.520	.249***	.423
자기통제	.011	.057	-.030	-.071
차별접촉*자기통제	.014*	.232	-.014**	-.246
R제곱	.199		.462	
F값	6.035***		19.740***	

*p<.05; **p<.01; ***p<.001

〈표 4-2〉 사이버범죄에 대한 도덕요인갈등에서 처벌억제의 영향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차별접촉(상)		차별접촉(하)	
독립변인	b	β	b	β
남성	1.030*	.156	.250	.136
연령	-.035	-.023	.001	.002
경제수준	.036	.008	.114	.096
도덕성	-.137	-.189	-.124***	-.532
처벌억제	.011	.018	.006	.046
도덕성*처벌억제	.043***	.436	-.006**	-.247
R제곱	.382		.237	
F값	12.989***		8.130***	

*p<.05; **p<.01; ***p<.001

마찬가지로 <표 4-2>에서와 같이 차별접촉을 상하로 나누고, 차별접촉이 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차별접촉은 낮는데 도덕성이 낮은 경우의 갈등상황에서의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황행위론의와는 달리 그 상호작용효과의 부호가 부(-)적으로 p<.01수준에서 유의미해서 오히려 처벌억제가 범죄를 더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오히려 차별접촉이 상인 때 도덕성과 처벌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는데 이는 차별접촉이 높고 도덕성이 낮은 상황에서 처벌억제가 통제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주위의 통제작용으로 확대한 논의의 <표 5-1>과 <표 5-2>의 결과를 보면 우선 <표 5-1>에서 도덕성이 상인 경우 차별접촉과 주위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표 5-2>에서 보면 차별접촉이 하인 경우 도덕성과 주위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비록 <표 5-1>의 도덕성이 하인 경우 차별접촉과 자기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표 5-2>의 차별접촉이 상인 경우에서 도덕성과 주위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차별접촉도 높고 도덕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위통제가 통제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5-1〉 사이버범죄에 대한 도덕요인갈등에서 주위통제의 영향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도덕성(상)		도덕성(하)	
독립변인	b	β	b	β
남성	.069	.024	.768	.120
연령	.047	.070	-.004	-.003
경제수준	-.052	-.027	-.068	-.016
차별접촉	.185***	.364	.324***	.550
주위통제	-.140*	-.239	-.137	-.110
차별접촉*주위통제	-.037	-.168	-.017	-.095
R제곱	.193		.451	
F값	5,834***		19,040***	

* $p<.05$; ** $p<.01$; *** $p<.001$

〈표 5-2〉 사이버범죄에 대한 도덕요인갈등에서 주위통제의 영향분석

	종속변인			
	사이버범죄			
	차별접촉(상)		차별접촉(하)	
독립변인	b	β	b	β
남성	1.237*	.187	.085	.040
연령	-.050	-.033	.049	.092
경제수준	-.146	-.033	.100	.073
도덕성	-.208**	-.287	-.097***	-.361
주위통제	-.192*	-.153	.007	.016
도덕성*주위통제	.062**	.244	-.015	-.128
R제곱	.349		.149	
F값	11.243***		4.655***	

*p<.05; **p<.01; ***p<.001

V. 결론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의 시도의 하나로 그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상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해 보려고 했다.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여러 가설들을 제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상황행위이론의 주장과는 달랐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 그리고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도덕성과 차별접촉요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와는 달리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도덕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의 영향력 및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행위이론에서 강조한 도덕차원의 요인들이 사이버범죄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해 어느 정도는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로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이 있을 때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확대된 논의로 주위통제의 작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랐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도덕성이 높지만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이 높은 갈등상황에서가 아니라 대안적 논의로 제시한 도덕성이 낮고 그리고 차별접촉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가 범죄통제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차별접촉이 낮지만 도덕성이 낮은 경우의 갈등상황에서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할 것이라는 상황행위논의와는 달리 대안적 논의에 따라 차별접촉이 높을 때 그리고 도덕성이 낮은 상황에서 처벌억제가 통제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좀 더 확대된 논의로 주위의 통제작용에서도 도덕성이 높은 경우 차별접촉과 주위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또한 차별접촉이 낮은 경우 도덕성과 주위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안적 논의대로 차별접촉이 높고 도덕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위통제가 통제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도덕차원의 요인간에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나 처벌억제의 통제요인이 작동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은 전체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요인의 갈등상황에서보다는 개인의 도덕성도 낮고 차별접촉 환경요인도 높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 처벌억제, 주위통제의 모든 통제요인이 통제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에서와 같이 도덕차원의 개인 및 사회요인으로 도덕성과 차별접촉요인은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이 낮고 동시에 환경요건으로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범죄동기와 범죄기회 그리고 범죄동기와 도덕차원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나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의 환경과의 갈등상황에서 통제요인들이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범죄동기를 과거의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으로 국한한 점에 앞으로는 다양한 동기를 사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피해

시 보복과 응징의 동기에서 폭력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로서 측정된 사이버범죄의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 성적 욕구해소나 물질적 이득 등 그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성의 경우도 각 사이버범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측정했지만 일반적 도덕성이나 윤리의식과 같은 새로운 측정도구로 연구될 필요가 있고, 또한 도덕차원의 환경요인으로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에 주목했지만 좀 더 사회거시차원의 문화요인을 고려한다면 상황행위이론이 지지될지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전체를 다루었지만 요인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범죄유형별로 그 결과가 어떻게 상이할지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이 사이버범죄에 잘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그 이론을 적용해 보았지만 일부는 지지되었음에도 대체로 지지되지는 못했고 나름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나 통제요인의 작용은 개인과 환경요건의 갈등에서가 아니라 개인도 그리고 환경여건도 범죄유발적일 때 더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이나 가설들이 상황행위이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새로운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좀 더 타당한 대안적인 통합이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23-43.
- 성동규, 김도희, 이운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79-129.
- 이성식. 1995.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24:183-204.
- 이성식.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한국청소년학연구* 13(6):179-200.
- 이성식. 2017. 사이버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개정판). 그린.
- 이성식, 전신현, 심홍진. 2016. 모바일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설명을 위한 통합모델의 검증: 배출요인과 촉진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2):293-314.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47-87.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Antonaccio, O. and Tittle, C. 2008. Morality, Self-Control and Crime. *Criminology* 46:479-510.
- Elliott, D.S., D. Huizinga, and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Gallupe, O. and Batton, S.W. 2014. Morality, Self-Control, Deterrence, and Drug Use: Street Youths and Situational Action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60:284-305.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eimer, K. and Matsueda, R. 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65-390.
- Higgins, G., Fell, B. and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339-35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R.F. Baumeister and K.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537-552). New York. NY:Guilford.
- Hirtenlehner, H., Pauwels, L., and Mesko, G. 2015. Is the Criminogenic Effect of Exposure to Peer Delinquency dependent on the Ability to exercise Self-Contro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532-543.
- Hirtenlehner, H. and Kunz, F. 2016. The Interaction between Self-Control and Morality in Crime Causation among Older Adult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3:393-409.
- Meldrum, R., Miller, H. and Flexon, J. 2013. Susceptibility to Peer Influence, Self-Control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Inquiry* 83:106-129.
- Pauwels, L., Weerman, F., Bruisma, G, and Bernasco, W. 2011. Perceived Sanction Risk, Individual Propensity and Adolescent Offend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8:386-400.
- Piquero, N.L. and Sealock, M.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449-84.
- Qusey, G. and Wilcox, O. 2007. Interactions between Antisocial Propensity and Life-course varying Correlates of Delinquent Behavior: Differences by Method of Estim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ory. *Criminology* 45:401-442.
- Schoepfer, A. and Piquero, A.R.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Activity. *Deviant Behavior* 27:51-71.
- Svensson, R. 2015. An Examin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ity and Deterrence in Offending: A Research Note. *Crime and Delinquency* 61:3-18.
- Svensson, R., Pauwels, L., and Weerman, F. 2010. Does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Adolescent Offending vary by Level of Morali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732-743.
- Ward, J.T., Bonam, J.H. and Jones, S. 2015. Hirschi's Redefined Self-Control: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Merger between Social and Self-Control Theories. *Crime and Delinquency* 61:1206-1233.
- Wikström, P.O. 2004. Crime as alternative towards a Cross-level Situation Action Theory of Crime Causation. In McCord(ed), *Beyond Empiricism, Institutions, and Intentions in the Study of Crime*(pp. 1-37). New Bruswick: Transaction.
- Wikström, P.O. 2006. Individuals, Settings, and Acts of Crime. In P.O. Wikström and R. Sampson(Eds), *The Explanation of Crime: Context, Mechanisms, and Development*(pp.61-1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kström, P.O. 2010. Explaining Crime as Moral Action. In S. Hirtlin and S. Vaisey(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orality*(pp.211-240). New York:Springer.
- Wikström, P.O. and Svensson, R. 2010. When does Self-Control matter?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ity and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onology 7:395-410.

Wikström, P.O., Tseloni, H., and Karlis, D. 2011. Do People comply by the Law because They fear Getting Caught?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8:401-420.

Wright. B.R., Capsi, A., Moffitt, T.E. and Paternoster, R. 2004. Does the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deter Criminally Prone Individuals?. Rational Choice,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80-213.

An Application of Extended and Revised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Cybercrime

Lee, Seong-sik

This study introduces a situational action theory and applies to cybercrime for trying to integrate several explanations. This study examines several and extended hypotheses to explain college students' cybercrime. It test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sonal morality and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motivation(cybercrime victimization) and other factors(perceived opportunity, morality and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This study also tests the effects of control factors(self-control, deterrence and informal control) in moral conflict situation. Overall, this study does not suppor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Results show that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sonal morality and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is significant, bu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ybercrime victimization and both perceived opportunity and moral factors(morality and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a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in testing the effects of control factors(self-control, deterrence and informal control) in moral conflict situation, it is found that self-control, deterrence, and informal control are exercised not in moral conflict (high morality and high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or low morality and low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but in high crime situation(low morality and high association with cybercriminal peers). It is shown tha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is limited and needs to revise to explain cybercrime.

❖ Key words: Cybercrime, Situational action theory, Moral factors, Control factors.

투고일 : 8월 21일 / 심사일 : 9월 20일 / 게재확정일 : 9월 20일
--